

민앤지(214180)

Not Rated

주가(6/19, 원)	23,700
시가총액(십억원)	282
발행주식수(백만)	12
52주 최고/최저가(원)	25,450/16,150
일평균 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4,171
유동주식비율(%)	72.2
외국인지분율(%)	18.7
주요주주(%)	이경민 외 1인 26.9
미래에셋자산운용 외 3인	6.3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DY (%)
2016A	41	16	11	457	NM	17	32.9	9.4	2.4	13.9	1.5
2017A	80	21	18	1,242	172.1	27	20.2	8.6	3.6	17.0	1.0
2018A	107	26	20	1,074	(13.5)	31	16.3	4.8	2.3	14.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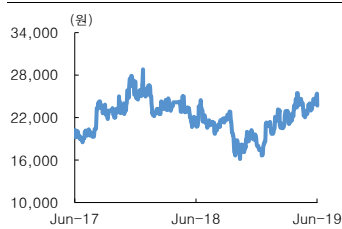
주: 순이익은 자본법적용 순이익

핀테크 대어가 온다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3	30.2	13.9
상대주가(%p)	4.8	23.4	25.9

주가추이



자회사 세틀뱅크 IPO 절차 돌입

- 세틀뱅크는 민앤지가 2016년 인수한 핀테크 자회사. 6/27~28 수요일에 예정. 공모 희망가 하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 4,077억원. 상장 후 예상 지분율 40.8%
- 2001년 국내 최초 가상계좌 서비스 출시하여 시장을 사실상 독점
- 2010년 국내 최초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
- 2018년 매출액 572억원(+45% YoY), 영업이익 132억원(+40% YoY, 영업이익률 23.0%), 순이익 120억원(+28% YoY, 순이익률 21.0%)을 기록

PAY 서비스를 통한 간편현금결제 보급 본격화

-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는 간편결제 이용시 신용카드가 아닌 금융계좌의 현금을 이용한 결제를 지원. 최초 1회 계좌를 등록 후 비밀번호만으로 편리하게 결제
- 사업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율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
-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대비 높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사용 유인
- 사업자들은 절약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을 유도. PAY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캐시백 비율을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간편현금결제의 보급이 본격화
- 2018년 국내 간편결제결제 거래액은 3.2조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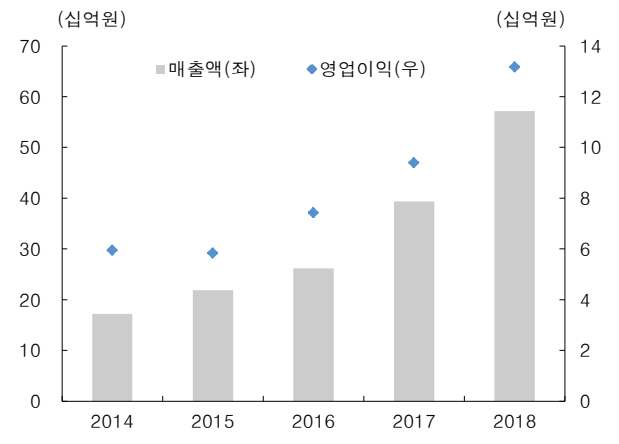
개인정보보안 2차 인증의 선두주자

- 민앤지는 서비스 대부분이 이동통신사의 요금에 합산 과금돼 수취가 용이
- '휴대폰번호도용방지', '로그인플러스', '휴대폰간편로그인' 등 국내 개인정보보안 2차 인증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주식투자노트', '슈퍼스타' 등 생활 정보 플랫폼의 성장세가 추가돼 실적 개선세 지속될 전망
- 2018년 별도 기준 매출액 495억원(+21% YoY), 영업이익 175억원(+11% YoY, 영업이익률 35.5%)을 기록

이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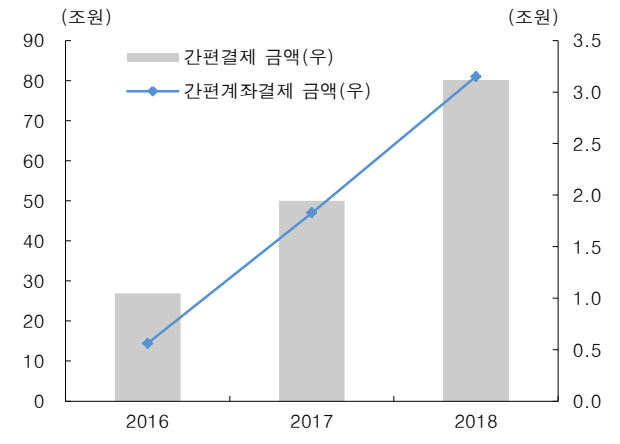
ysanglee@truefriend.com

[그림 12] 세틀뱅크 연도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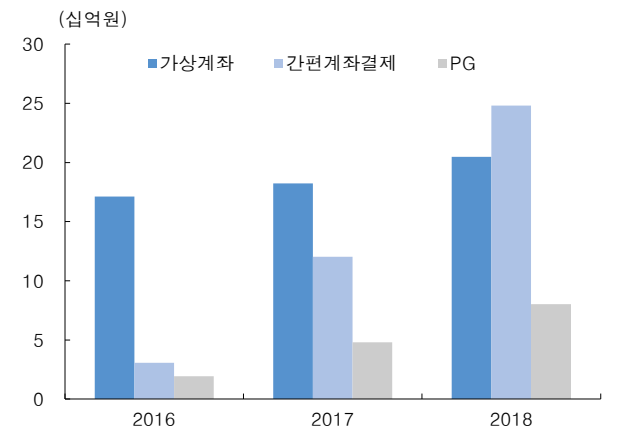
자료: 민앤지, 세틀뱅크,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국내 간편결제 거래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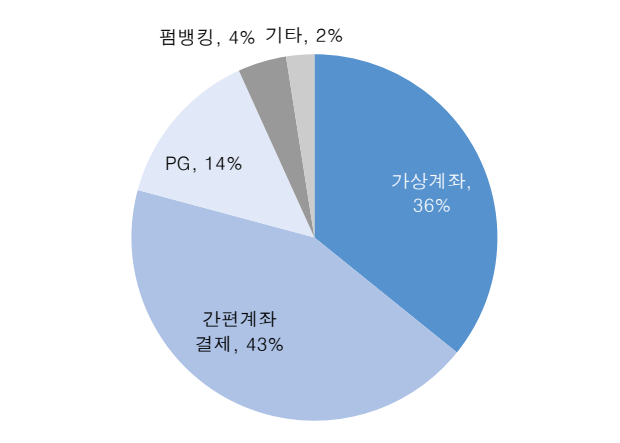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세틀뱅크 주요 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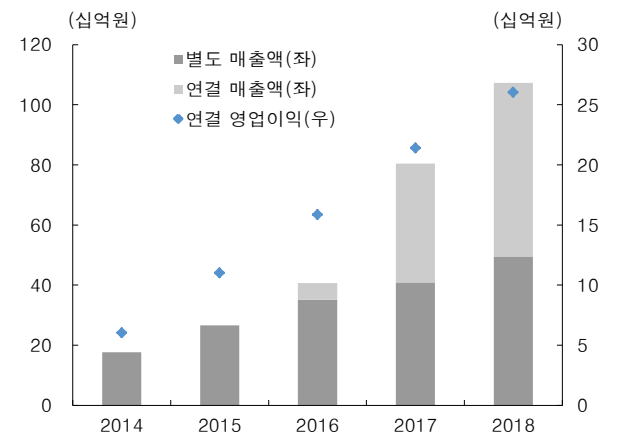
자료: 세틀뱅크,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세틀뱅크 2018년 부문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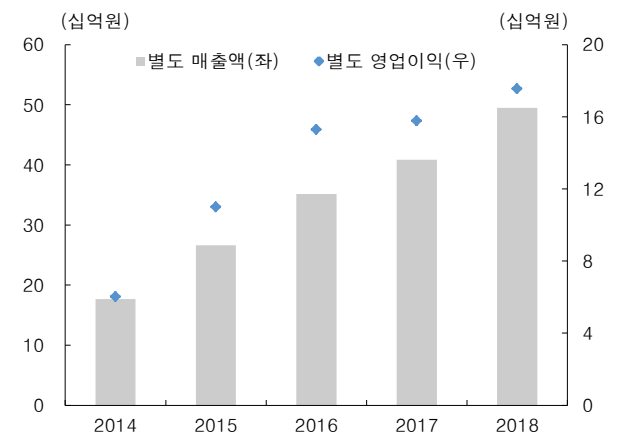
자료: 세틀뱅크,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연결 기준 연도별 실적 추이



자료: 민앤지,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별도 기준 연도별 실적 추이



자료: 민앤지, 한국투자증권